전주시 건강정책, 시민참여로

시 보건소,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대상…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학교(보건복지부 지정)와 협력해 실시하는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주시 표본가구원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정조사이자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17개 시, 도, 255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주요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건강문제를 도출해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내년 4월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표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주시 35개 행정동 표본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계측조사 및 1:1면접조사(전자조사표를 이용해 노트북으로 진행)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21개 영역의 211개 조사문항으로, 총 157개의 지표를 생산하게 된다.

조사기간 중 조사원은 명찰이 부착된 복장(티셔츠)을 착용하고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며, 조사 참여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과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리플릿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사가 전주시를 대표하는 건강통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조사원 방문 시 '우리 지역 건강정책은 우리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는 건강통계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개인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완료(2020년 3월) 이후 일괄 파기 된다. /송효철 기자

광복절주간 공공시설 '무료'

전주시, 내일부터 18일까지 동물원 등 3곳

광복절을 맞아 전주동물원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등 주요 공공시설이 무료 개방된다.

전주시는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광복절인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일간 전주동물원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관 등 3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시설 무료개방은 광복절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주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공시설 무료개방을 통해 광복 74주년 축하분위기를 확산하고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며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희생한 민족 선열을 기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전주시, 민간연계 이사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10가구 대상

저소득층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 이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보금자리 이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와 고령자·장애인 등의 주거약자가 이사할 경우 일반이사 수준의 이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개인후원자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후원한 지정기탁 기부금을 활용해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에서 주관하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원광모자원 등 주거복지네트워크 단체, 전문 이사 업체인 '삼촌네 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함께 협력해 진행하는 민간자원 연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 총 10가구의 이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사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또는 전주시주거복지센터(063-281-5276)로 연락하면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시작된 보금자리 이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5가구의 이사를 도왔다.

/송효철 기자

"누구나 작곡가가 될 수 있어요"

소리문화전당, '꼬마작곡가' 하반기 참가자 모집

오늘까지… 2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꼬마작곡가'에 참여할 하반기 참가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꼬마작곡가는 뉴욕 필하모닉이 개발한 예술교육으로 아이들이 직접 작곡한 곡을 공연장에서 전문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로 연주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어렵고 지루한 교육 대신에 놀이를 통해 음악을 배우게 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음악이 연주되는 과정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14명의 아동과 5팀의 가족이 참여해 본인들이 작곡한 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엄마 아빠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어요."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했고, 부모들 역시"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같이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며 교육에 만족했다.

신청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soriart21@naver.com)로 제출하면 되고, 개별면담을 통해 8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꼬마작곡가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주관하는 학교 밖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코와 입을 막고 점프!' 무더위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린 13일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에서 한 학생이 진지한 모습으로 선박탈출 체험을 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본격화

전주시, 계획수립 착수보고회

유형별 분리한 후 지역 특성에 맞춰 맞춤형 빈집정비 추진

장기간 방치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에 대한 맞춤형 정비계획이 수립된다.

전주시는 구도심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빈집증가 및 주택 노후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만의 공공주도형 주거지재생 정책과 민·관 협력형 사업모델을 만드는 주거지 재생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13일 최무결 생태도시국장과 조준배 주거재생총괄단장, 시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앞서 추진된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총 1961가구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와 빈집·도시재생 전문가 등과 함께 빈집의 유형과 안전상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시와 LX가 지난 4월부터 8월 초까지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전주지역에는 현재 최근 1년간 에너지 사용이 없는 빈집이 총 1961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을 맡은 LX는 향후 빈집정비계획 전담부서를 꾸려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분포와 유형 등의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해 올 연말까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빈집뱅크를 구축해 원도심 재생의 활력소가 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정비사업에 총 14억5000만원을 투입, 총 128동의 빈집을 공용주차장과 공용텃밭·반값임대주택 등으로 개선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완산수영장, 대통령배 수영대회 개최로 20일부터 8일간 휴장

전주완산수영장이 제38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개최로 8일간 휴장한다.

13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제38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가 완산수영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회 기간 동안 경영, 수구, 다이빙, 아티스틱 스위밍 4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며, 전국 16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겨룬다.

공단은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대회 종료 이튿날인 28일 오전 6시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해 일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성환 이사장은 "매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대회 기간 선수와 임원, 학부모 등 일일 3000여명 이상이 전주에서 체류하며, 숙박 및 지역 관광지 방문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